

요미가나 일본어성경

ヨハネの手紙(てがみ)第二(だいに)一章(いっしょう)

[4개국어]진리에 기초한 균형 잡힌 사랑 (요한이서 1:1-13) :

<http://www.cgntv.net/#/home.cgn>

1. 長老(ちょうろう)から、選(えら)ばれた夫人(ふじん)と  
その子(こ)どもたちへ。私(わたし)はあなたがたをほんとうに  
愛(あい)しています。私(わたし)だけでなく、真理(しんり)を  
知(し)っている人々(ひとびと)がみな、そうです。

1.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  
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2. このことは、私(わたし)たちのうちに宿(やど)る真理(しんり)に  
よることです。そして真理(しんり)はいつまでも私たちとともにあります。

2.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라

3. 真理(しんり)と愛(あい)のうちに、父(ちち)なる神(かみ)と  
御父(みちち)の御子(みこ)イエス・キリストからの恵(めぐ)みと  
あわれみと平安(へいあん)は、私(わたし)たちとともにあります。

3.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4. あなたの子(こ)どもたちの中(なか)に、御父(みちち)から  
私(わたし)たちが受(う)けた命令(めいれい)のとおり  
真理(しんり)のうちを歩(あゆ)んでいる人(ひと)たちがあるのを  
知(し)って、私は非常(ひじょう)に喜(よろこ)んでいます。

4.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5. そこで夫人(ふじん)よ。お願(ねが)いしたいことがあります。

それは私(わたし)が新(あたらしい)命令(めいれい)を書(か)くのではなく、

初(はじめ)から私(わたし)たちが持(も)っていたものなのですが、

私(わたし)たちが互(たが)いに愛(あい)し合(あ)うということです。

5.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6. 愛(あい)とは、御父(みちち)の命令(めいれい)に従(したが)って

歩(あゆ)むことであり、命令(めいれい)とは、あなたがたが

初(はじめ)から聞(き)いているとおおり、愛(あい)のうちを歩(あゆ)むことです。

6.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7. なぜお願(ねが)いするかと言(い)えば、人(ひと)を

惑(まど)わす者(もの)、すなわち、イエス・キリストが人(ひと)として

来(こ)られたことを告白(こくはく)しない者が大(おお)ぜい

世(よ)に出(で)て行(い)ったからです。

こういう者は惑(まど)わす者(もの)であり、反(はん)キリストです。

7.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8. よく氣(き)をつけて、私(わたし)たちの労苦(ろうく)の

実(み)をだいなしにすることなく、豊(ゆた)かな報(むく)いを  
受(う)けるようになりなさい。

8.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  
라

9. だれでも行(ゆ)き過(す)ぎをして、キリストの教(おし)えの  
うちにとどまらない者(もの)は、神(かみ)を持(も)っていません。  
その教えのうちにとどまっている者は、御父(みちち)をも  
御子(みこ)をも持っています。

9.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10. あなたがたのところに来(く)る人(ひと)で、この教(おし)えを  
持(も)って来(こ)ない者(もの)は、家(いえ)に受(う)け入(い)れては  
いけません。その人にあいさつのことばをかけてもいけません。

10.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  
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11. そういう人(ひと)にあいさつすれば、  
その悪(わる)い行(おこな)いをともにすることになります。

11.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12. あなたがたに書(か)くべきことがたくさんありますが、  
紙(かみ)と墨(すみ)でしたくはありません。あなたがたのところに  
行(い)って、顔(かお)を合(あ)わせて語(かた)りたいと  
思(おも)います。私(わたし)たちの喜(よろこ)びが

全(まった)きものとなるためにです。

12.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3. 選(えら)ばれたあなたの姉妹(しまい)の子(こ)どもたちが、あなたによろしくと言(い)っています。

13.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네게 문안하느니라